

장수 침곡리 봉수, 삼국시대에 운용됐다

침령제 북쪽 위치한 해발 617m 산 정상부서 봉수시설 1기 등 확인
시설 근거로 가야세력들에 의해 처음 운용됐던 봉수유적으로 추정

삼국시대 봉수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산 20번지 (해발 617m) 일원에서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원장 이택구)에서 지난해부터 침곡리 산 20번지 일원으로 추정되는 '장수 침곡리 봉수'의 명확한 위치와 범위,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굴조사를 진행했다. 시굴조사 결과 천천면 춘송리와 계남면 침곡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침령제 북쪽에 위치한 해발 617m의 산 정상부에서 봉수시설 1기와 집수시설 1기, 정상부를 감싸는 석축시설 등을 확인했다. 산의 정상부는 '사람 인(人)'자 모양으로 세 갈래로 나뉜 듯 형성되어 있는데, 봉수시설은 세 갈래 길이 만나는 지점에서, 집수시설은 서북편의 갈림길에서 확인됐다. 봉수(봉화)시설은 산의 가장 높은 곳에서 확

인했으며 정상부 안반을 일부 다듬은 후 동남편과 서북편, 남편의 안반을 깎아 출입시설을 만들고, 중앙부 안반을 파내어 발화시설을 만든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발화시설 주변의 안반은 불을 맞은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으며 토층에서 소토(불먹은 흙)도 일부 확인됐다. 집수시설은 돌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물저장용 구덩이를 말하며, 이번 조사에서 봉수시설의 서북편 평탄지에서 확인됐다. 방형(혹은 말각방형)의 형태를 띠고 남동쪽과 북서쪽 벽면에서 석축이 돌아오고 있음이 지표상에서 나타났다. 탐색트렌치를 설치해 토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160cm 아래에서 암회색 점질토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점토를 이용해 바닥과 벽체를 시설했던 집수정시설로 추정된다. 석축은 정상부 능선을 따라 조성되었으며 현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산 20번지 (해발 617m) 일원에서 확인된 침곡리 봉수시설(왼쪽)과 발화시설.

재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석축은 정상부 남편 경사면에서 확인되며, 경사를 이용해 하단부부터 석축을 쌓고 상단부에 계단식으로 들어섰다. 석축 내부는 잡석채움을 했으며, 상단부의 경우 7~8단이 확인된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시루편, 베투편, 연질토기편, 경질토기편 등의 가야부터 통일신라 말기까지의 다양한 유물들이다. 확인된 유구와 유물 등을 근거로 가야세력

들에 의해 처음으로 운용되었던 봉수유적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통일신라 말기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다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이번 "장수 침곡리 봉수 시굴조사의 성과를 통해 장수지역의 옛이름인 반파를 찾는 데 한걸음 더 다가 갔다"며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보존·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결혼이민여성 '토탈공예지도사' 양성 교육생 모집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는 도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인 '토탈 공예 지도사 양성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무료)으로 토탈 공예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과정이다. 교육일정은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총 100시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캔들, 천연비누, 열쇠고리, 방향제, 모기퇴치제, 뜨개질, 석고, 펠트 제작 등 공예이론 및 실습 ▲공예를 활용한 창업 및 취업 ▲직업윤리 등이다. 이운애 센터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토탈 공예 분야로의 취·창업에 통해 기계소득 증대는 물론 스스로 일하는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여성가족부, 신한금융그룹과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 협약' 체결로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여성 전원에게 월 3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취업지원팀 063)254-3601 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성 기자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9월 16~20일 개최 확정

조직위, 코로나19 사태변화 주시
국내외 콜라보 등 변수 가능성 커
"7~8월 실현가능 범위 확정 발표"

모와 의미를 확장하는 한편 현악기 '이름'의 의미를 담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한 프로그램 배치 등 세 가지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한려 수교 30주년 기념 '러시아 포커스'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지난해 소리축제와 협약을 체결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페테르부르크 콘서트홀' 등 양국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예술가들의 교류와 협업을 끌어낼 방침이다. 다만 글로벌 축제로서 국내외 아티스트 사이를 잇고 음악적 소통을 통한 다양한 결과물을 선보여 온 소리축제로서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글로벌 축제의 특성상 축제 일정을 연기하는 문제는 고심 끝에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로서는 정상 개최를 목표로 하되, 다양한 변수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최상에서 최하까지 스펙트럼 안에서 고민하면서 시기적으로 마지못스런 오는 7~8월 경 실현가능한 범위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당장 하반기 공연 및 축제 솔림 현상에 대한 대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민과 관객들의 정서적·경제적 변화와 추이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라며 "내년에는 20주년이 맞물려 있는 만큼, 다양한 고민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서와 국내외 환경에 맞는 변화된 축제 패러다임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부안청자박물관·석정문화관
매창테마관 등 모두 재개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부안청자박물관과 석정문화관, 매창테마관, 휘복미술관 등 관내 휴관 문화시설들을 7일부터 모두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문화시설들은 전화 사전예약제 등 코로나19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 부안청자박물관은 관람객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석정문화관과 매창테마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문화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시 발열·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신원 확인 등 생활방역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 인문가치 확산

순창군,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독서문화 진흥 협약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순창'을 군정 기조로 삼은 순창군이 7일 순창군립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김수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순창군 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지역민의 인문정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독서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문화의 자생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독서문화 진흥과 인문정신 고양을 통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을 내면화하여 삶에서 실천하고 공유와 소통을 통한 인문자산을 발굴,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산업으로 이어져 '문화가 숨쉬는 순창'의 대담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창군립도서관은 연간 1천회 이상 독서, 인문특강, 전시,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각종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민들은 책을 더 많이 읽고 풍부한 상상력과 뛰어난 창의성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삶을 실천하고 공유하는 인문정신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행복한 순창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